

의정소식



ULSAN BUK-GU
COUNCIL NEWSLETTER

구민 복리 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해
쉽 없이 발로 뛰며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울산의 심장(권기화, 북구 관광사진전 수상작)



CONTENTS

ULSAN BUK-GU COUNCIL NEWSLETTER



- 04 발간사
- 05 의원현황 및 정수
- 06 북구의회 연혁 및 조직
- 07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안건처리 현황
- 08 주요의정활동
 - 제190회 임시회
 - 제191회 임시회
 - 제192회 제2차 정례회
- 12 주요 안건처리 현황
- 1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19 현장 속으로
- 27 결의안, 5분 자유발언
- 40 2020년 하반기 포토 의정



표지설명 | **주상절리 일출**
(변양옥, 북구관광사진전 수상작)

발행일 | 2020년 하반기, 제25호
발행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편집인 |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과장
발행처 |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과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전화 | 052-241-8973
홈페이지 | <http://council.bukgu.ulsan.kr>



주민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에게 큰 근심을 안겨준 2020년이 가고 2021년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북구의회는 지난 한 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온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 덕에 지역 발전을 위한 행보를 멈춤 없이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구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북구는 지난해에도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활기차고 역동적인,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다져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구민들의 엄청난 염원이던 (가칭)송정역 광역전철 연장운행 관련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운행은 짧게는 우리 주민들의 교통편의 확충을, 길게는 우리 북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에 더해 편리한 철도 교통망까지 확충하면서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한편, 역세권 개발을 통해 도심에 구축할 수 있다면 북구는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울산 중심축의 하나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올해도 우리 앞에는 경제·문화·정주환경 개선, 주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강동권 개발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기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현안에 더해 기박산성 의병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어촌뉴딜 300사업, 평생학습 도시 조성, 골목상권 활성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차질 없는 사업이 이뤄지도록 의회에서도 집행기관과 더불어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새해에는 백신 접종 소식과 같은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만큼, 서로 격려하면서 조금 더 견뎌낸다면 넘지 못할 것 같았던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북구의회는 신축년에도 주민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욱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주민 옆에 위치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원칙으로 집행기관과 손발을 맞추어 오로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 기울일 것입니다.

신축년에도 변함없는 관심으로 북구의회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임 채 오**

제7대 [후반기] 북구의회 의원현황

의장



성명 임채오
연락처 010-4844-5405
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구민이 최고’,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북구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의장



성명 이정민
연락처 010-3123-3387
선거구 농소2·3동

주민에게 다가가고, 주민에게 사랑받는 북구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성명 이진복
연락처 010-4228-8986
선거구 비례대표

구민의 이익을 지키며, 겸손하고 착실한 심부름꾼으로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의원



성명 이주언
연락처 010-9173-4432
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든든한 의정활동을 펼쳐 기본 좋은 결과로 보답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의원



성명 정치락
연락처 010-3863-8980
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정치꾼이 아닌 이웃을 위한 구의원으로서 단디 하겠습니다.

의원



성명 정외경
연락처 010-6625-7725
선거구 농소2·3동

초심, 열심, 지심으로 더 많은 행복을 만드는 생활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의원



성명 임수필
연락처 010-6227-0049
선거구 농소2·3동

노동자 서민의 직접 참여정치가 희망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의원



성명 백현조
연락처 010-3801-8364
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늘 그랬듯이 이웃 같은 구의원으로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의원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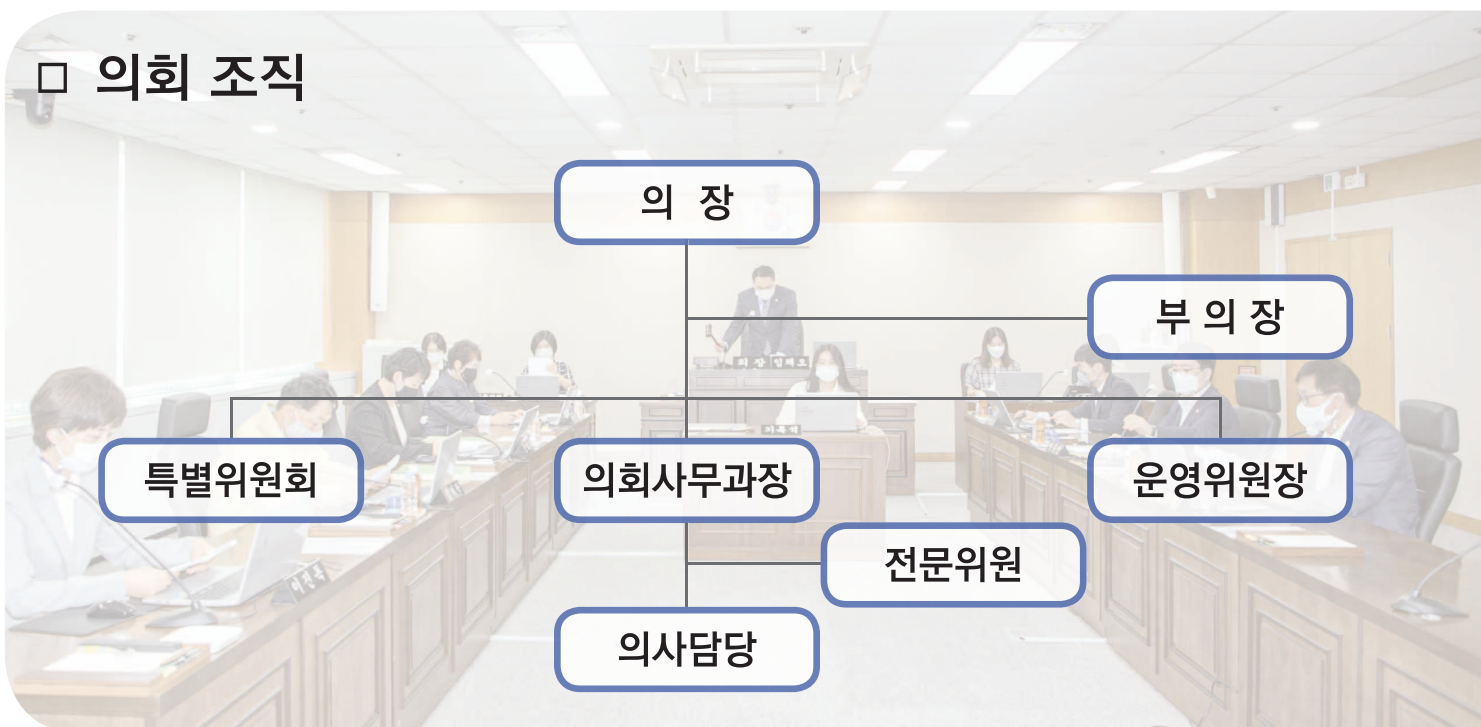
계	가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나선거구 (농소2·농소3동)	다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비례대표
8	2	3	2	1

□ 울산광역시 승격 및 북구의회 설치

- 1997. 7. 15 초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1998. 3. 1 동구 염포동 선거구 북구 편입(8명)
- 1998. 6. 4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1998. 7. 7 제2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0. 2. 21 송정동의원 사직(7명)
- 2000. 6. 8 송정동의원 보궐선거(8명)
- 2002. 6. 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02. 7. 9 제3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06. 7. 3 제4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0. 7. 1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0. 7. 1. ~ 2014. 6. 30.
-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4. 7. 1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4. 7. 1. ~ 2018. 6. 30.
-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8. 7. 1 제7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임기 : 2018. 7. 1. ~ 2022. 6. 30.
- 2020. 1. 15 농소1·강동·송정동의원 사직(7명)
- 2020. 4. 15 농소1·강동·송정동의원 보궐선거(8명)



□ 의회 조직





회기운영 현황(2020. 7. 1. ~ 12. 31.)

구 분	계		임 시 회		정 령 회	
	회 수	일 수	회 수	일 수	회 수	일 수
2020년 하반기	3	50	2	18	1	32

안건처리 현황

회 수	일수	계	예산안	결산	조례안	동의안 (승인)	결의안 (건의안)	보고	질문	5분 자유발언	기타
제190회 (2020.09.01.~09.15.)	15	15	1	0	3	0	2	0	0	2	7
제191회 (2020.10.14.~10.16.)	3	8	0	0	2	0	1	0	0	0	5
제192회 (2020.11.20.~12.21.)	32	41	3	0	24	1	2	0	0	4	7
합 계	50	64	4	0	29	1	5	0	0	6	1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90회 || 임시회 2020. 9. 1. ~ 9. 15. (15일간)

울산북구의회가 제190회 임시회에서 ‘울산미래교육관’의 복구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구의회는 9월 1일 본회의장에서 1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1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동의한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외경 의원은 결의안 낭독에서 “울산시교육청이 부족한 북구지역의 교육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할 미래교육관을 강동에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곧 진행할 공동중앙투자심사에서 이 교육관의 설립을 반드시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구의회는 또 이주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복구 건립 촉구 결의안’도 역시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북구의회는 15일까지 진행된 이 임시회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임채오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상반기 구정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구정 운영방향을 살필 좋은 기회”라며 “코로나19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추가경정 예산안이 필요한 사업에 편성됐는지, 사업 계획은 타당한지 깊이 있게 심의해 주기 바란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임수필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91회 || 임시회 2020. 10. 14. ~ 10. 16. (3일간)

울산북구의회가 10월 1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3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

북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북구의회는 제192회 2차 정례회 기간 가운데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소회의실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북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도심융합특구의 울산 북구지역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의결했다.

10월 16일 소회의실에서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이진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울산북구 유치 촉구 결의안'을 의원 8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한 것이다.

이진복 의원은 결의안에서 "정부가 울산 등 지방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북구도 창평동 일원과 시례·상안동 일원을 후보지로 유치에 나섰다"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북구가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22만 구민과 함께 도심융합특구의 북구 지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구의회는 이날 본회의 후에는 임시회 현장방문 활동으로 화봉동에 새로 지은 북구노인회관과 동해선(가칭)송정역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현안을 챙겼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92회 || 제2차 정례회 2020. 11. 20. ~ 12. 21. (32일간)

울산북구의회가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한 달여 일정으로 '제192회 2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했다.

북구의회는 11월 20일 본회의장에서 정례회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임채오 의장은 개회사에서 “행정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예리한 통찰로 집행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와 정책적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활용하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본회의 서두에서 이주언 의원은 ‘3도심 균형 발전과 송정역 역세권 개발을 준비하자’를 주제로, 이진복 운영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북구의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구청 각 실·국·관·과 및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북구시설관리공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했다. 이어 12월 2일부터 폐회일인 21일까지는 조례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나섰다.



민주의정, 중구도시재생센터 방문

2020. 9. 21.

울산북구의회 임채오 의장과 이진복 운영위원장, 이주언, 정외경 의원으로 구성된 민주의정연구회가 9월 21일 중구 깨어나라성곽도시 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센터장 길경희)를 방문해 북구와 중구 도시재생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을 직접 둘러 보면서 상호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희망북구 의정포럼, 안동 콘텐츠 연구

2020. 11. 12. ~ 13.

울산북구의회 이정민 부의장과 이진복 운영위원장, 백현조 의원으로 구성된 '희망북구 의정포럼'이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안동시를 방문해 역사, 생태, 문화 콘텐츠를 연구했다.



의정연구회, 인권제도 연구 워크숍

2020. 11. 20.

울산북구의회 '의정연구회'가 20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의 실효적 이행 방안 연구'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제190회 | 임시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가 포함된 조례를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여 순화할 수 있는 용어로 일괄 정비함.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키고 생활문화를 활성화하며, 지역 문화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정외경 의원 외]

*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미래사회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선도할 '울산미래교육관' 설립을 승인할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함.

● 동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북구 건립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이주언 의원 외]

* 고용노동부와 울산광역시는 지역 내 균형발전 및 접근성 강화 등 입지 환경을 고려하여 북구에 동남권 글로벌숙련 기술진흥원을 건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함.

제191회 | 임시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원안가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부결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 규정을 신설하고, 특별 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도심융합특구 울산복구 유치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이진복 의원 외]

* 울산을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 성장시키는 주춧돌이 될 울산복구 지역에 대한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촉구하고자 결의함.

제192회 | 제2차 정례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21년도 예산안 ▶ 수정가결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함.

● 202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함.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복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이정민 의원 외]

*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이진복 의원 외]

* 의안 제출기한을 변경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 원안가결 [백현조 의원 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이주언 의원 외]

* 울산광역시 북구의정비심의회에서 통보('18. 11. 17.)된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내역 중 월정수당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체결 시 협약내용 공증 의무화 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절차·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 사무위탁 협약내용의 공증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지방보조금 신청 제한 및 감액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제2항에 따라 우리 구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

*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2020. 8. 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을 명시한 자치법규가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에 따라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으로 육성하고 창업전문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청년창업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포상의 종류에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성실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으로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자치법규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된 사항의 개정 권고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불편사항 개선하기 위함.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 원안가결

* 2021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그 의결을 얻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정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도래(2020. 12. 31.)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지역의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전담 부서 신설과 주민 행정 수요에 맞춘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을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주민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탄력적 정원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협동조합 지원 조례로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각지대 해소와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양성평등기본법」 및 「울산광역시 북구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20. 9. 16. 전부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공무원 및 특이(악성·고질)민원에 노출된 공무원의 신변을 보호하고자 특별휴가(치유휴가)의 신설을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조례로 정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노래연습장업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체육시설 사용료 및 할인율의 현실화 필요성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호계문화체육센터 개관에 따라 운영과 관련한 체육시설물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관내 북부경찰서의 개서에 따라 당연직 위원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통합방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지지 및 신속 개정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이주언 의원 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국회에서 신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22만 북구 주민과 함께 촉구함.

●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임채오 의원 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여 현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선언하고, 기후문제를 해결하여 미래세대에 지속 가능한 삶, 더 나은 생활환경을 물려주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① 목 적

2020년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 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②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 「울산광역시 복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③ 감사기간 : 2020. 11. 23. ~ 12. 1.(9일간)

④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101	16	85
공 통 사 항	5	1	4
기 획 조 정 실 (행정복지센터 포함)	18	6	12
행 정 지 원 국	16	2	14
복 지 환 경 국	27	3	24
안 전 건 설 국	28	4	24
보 건 소	3	-	3
문 화 예 술 회 관	1	-	1
시 설 관 리 공 단	3	-	3
의 회 사 무 과	-	-	-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구분	주요질의사항
 이정민 부의장	각종 위원회 위촉 시 성별 비율을 균형 있게 구성 -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회는 여전히 특정성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위원회 구성 시 성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하기 바람. 문화재 관리 철저 - 울산광역시 지정 기념물 제30호 상안동 지석묘 현장을 가보니 풀이 무성하여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문화재는 우리가 아끼고 보존해야 하는 선조들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상안동 지석묘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재들도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람.
 이진복 운영위원장	공사 등 각종 계약 시 복구 지역 업체 계약 추진 - 각종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 현황을 보면 소액, 단순 공사까지도 타 구 업체를 이용하는 부서가 많음. 복구 지역업체가 없는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복구 관내 지역업체를 이용하여 주기 바람. 종량제봉투 용량 다각화 검토 -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 및 산재 예방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용량을 최대 75리터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1인 가구 확대에 따라 5리터 미만 종량제봉투 제작도 실정에 맞게 검토하여 주기 바람.
 이주언 의원	사회조사 결과를 정책기획에 적극 반영 - 울산광역시에서는 매년 「통계법」에 의해 대시민 정책조사인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울주군에서도 사회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음. 사회조사결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파악과 정책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에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음. 향후에는 사회조사 결과를 정책기획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지역별 특성과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도서관 운영 - 명촌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해 관내 7개의 도서관이 특색이 없다는 의견이 많음. 예를 들어, 염포양정도서관은 자동차를 테마로 하고, 현재 건립 검토 중인 바다도서관의 경우 해양을 테마로 하여 관련 전문서적을 비치하는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도서관 운영이 필요함.

구분	주요질의사항
 정치락 의원	체육시설 방역 시 방역복 착용 등 지도 철저 - 코로나19 발생 후 북구체육회에서 자발적으로 관내 체육시설 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방역복도 입지 않고 마스크만 쓴 채 방역한 사실이 있음. 추후 방역 시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방역복 착용 등 안전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기 바라며, 방역장소 선정 시에도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람. - 또한, 북구체육회는 우리 구가 운영비를 보조하는 단체이니만큼 소속 직원들의 근태 관리와 각종 문서 보존기한 준수 등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람. 송정역 연장 운행 등 각종 사업 추진 만전 -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치 사례를 보면 시로부터 우리구가 외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송정역 연장 운행, 산림복지단지 조성 등 향후 계획된 사업들이 제 때 이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기 바람.
 정외경 의원	매곡천 친수환경 관리 내실화 - 매곡천 친수환경 조성 사업을 준공하였는데, 실개천 부유물로 인한 관로 막힘 및 녹조 현상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여 깨끗한 계류시설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연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민이 많이 찾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바람. 형평성 등을 고려한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안 마련 - 현재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사용료가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필요성은 이해되나 주민이 체감하는 인상률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보다 시설별, 종목별로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인상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임수필 의원	부서별 업무 추진 시 기후위기 대응 필요 - 코로나19 위기는 기후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기후위기 대책 마련이 시급함. 부서별 업무 추진 시 작은 부분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해 주기 바람. 아동복지 추진 철저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동복지사업 내실화, 아동정책제안제도 운영, 결식아동 지원, 아동권리헌장 읽기 운동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특히, 아동권리헌장은 어린이집에 배포하여 교사가 숙지 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독려 바람.
 백현조 의원	지역별 균형 있는 공공시설물 건립 - 호계문화체육센터, 중산스포츠타운 등 최근 건립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공공시설물들이 농소권역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염포양정권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공시설물 건립 계획 시 균형 있게 추진하여 주기 바람.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철저 - 어촌어항 통합재생사업으로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 시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차별화된 콘텐츠 도입, 방문객의 체류환경 및 어민의 정주환경 개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과 청렴서약

울산북구의회 의원들이 부패 없이 청렴한 의원이 될 것을 공식적으로 서약했다.

임채오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원들은 7월 7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청렴서약서’에 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대내외적으로 공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반부패·청렴의지를 다지기 위한 자리다.

청렴서약서에는 △법과 원칙 준수 및 청렴한 사회 실현에 솔선수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으로 공익 수호 △권한 남용, 이권 개입과 알선 청탁 금지 등을 담았다.

임채오 의장은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했다”면서 “청렴한 사회를 위해 북구의회가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북구의원들은 이날 행사 후에는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국민권익위가 진행한 ‘청렴 라이브 교육’에 참가했다.



감성갱도2020 현장방문활동

울산북구의회가 9월 14일 190회 임시회 현장방문활동으로 '예술창작소 감성갱도 2020' 조성사업 현장을 찾았다.

감성갱도 2020은 북구 제내4길 18(신천동)에 총사업비 19억7천만원을 들여 부지면적 989㎡, 연면적 500㎡ 규모로 조성한 문화예술 공간이다.

광부들이 힘을 합해 만드는 갱도처럼 주민들이 합심해서 감성이 넘쳐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자는 의미로 '감성갱도'로 이름 지었다.

의원들은 감성갱도 필로티와 지상 1, 2층 내 갤러리와 세미나실, 작가 작업실, 동아리실 등 각종 시설물들을 살펴보고 차질 없고,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임채오 의장은 "주민 편의를 높일 시설들이 준공됨에 따라 직접 확인하고 개선할 점 등을 찾기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섰다"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운영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동리조트 공사 재개 환영 회견

울산북구의회가 롯데 강동리조트 조성공사의 12년 만에 재개 소식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차질 없는 추진을 기원하면서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도 찾기로 했다.

북구의회는 9월 14일 북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숙원사업이자 강동권 개발의 선도사업인 강동 워터파크지구 조성공사의 재개에 대해 환영과 기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회견은 울산시와 롯데건설, 북구청이 앞서 9월 8일 울산시청에서 체결한 ‘강동 관광단지 워터파크지구 조성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 등은 롯데건설이 4,500억원을 들여 강동 워터파크지구 10만8,985㎡ 일원에 숙박시설과 가든 풀&스파, 글램핑존, 가든카페 등을 갖춘 강동 리조트를 조성하는 데 대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2009년 공정률 37% 상태에서 리조트 공사를 중단한 지 10여년 만에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임채오 의장은 회견문에서 “개정된 관광진흥법 및 울산외곽순환도로 예타면제사업 확정 등에 힘입어 공사 재개를 앞두고 있다”며 “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면 강동권은 동해안 대표 최고 휴양타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명촌 도로변서 환경정화봉사

울산북구의회가 3분기 정례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9월 15일 명촌 주요 도로변 환경정화활동에 나섰다.

북구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이날 오전 19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마친 후 의원간담회를 거쳐 명촌동 일원으로 이동, 거리에 방치된 쓰레기와 인도 곳곳에 솟아난 잡초 제거에 나섰다.

또한 ‘깨끗한 자연환경, 청정도시 북구’ 등의 문구가 기재된 어깨띠를 두르고 환경정화 가두 캠페인도 벌였다.

임채오 의장은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환경을 정비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봉사하고 숭선 수범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앞 사회복지시설 위문

울산북구의회가 추석을 앞둔 9월 24일 천곡동에 위치한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과 호계동의 하늘아이 지역아동센터를 연이어 방문했다. 이번 활동은 관심과 온정이 필요한 이웃들이 보다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진행하는 명절맞이 복지시설 위문활동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시설 내부 방문을 생략하거나 체류 시간을 최소화하고, 위문품을 전달한 후 시설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사)울산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을 찾아 생필품을 전달한 뒤 자동차부품조립 현장을 둘러보고 시설 관계자로부터 현안을 청취했다.

이어 사회복지법인 어울림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하늘아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이곳의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놀이교구를 전달하면서 센터 관계자를 격려했다. 임채오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자칫 지역사회의 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면서 “모든 주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온정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머큐어호텔과 ‘코로나 극복 관광 활성화’ 협약

울산북구의회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10월 7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머큐어 앰버서더 울산호텔과 ‘코로나19 극복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북구 강동 산하지구에 위치한 이 호텔은 지난해 지상 11층, 지하 4층 131실 규모로 문을 열었다. 같은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4성급 호텔 등급을 인증 받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호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북구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경기 위축에 대응,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려고 이번 협약을 기획했다.

임채오 의장과 명노훈 호텔 대표이사는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북구의회 및 주민들의 호텔 이용 활성화와 북구 관광 명소 대외 홍보활동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임채오 의장은 “머큐어 앰버서더 호텔은 강동 등 북구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체류형 관광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교발전기금과 생활필수품을 기탁하는 등 사회 공헌활동도 펼치고 있다”면서 “북구의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계동서 4분기 환경정화 자원봉사

울산북구의회 의원 8명 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10월 16일 호계동 시장2리 일원에서 4분기 자원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날 활동은 북구의회가 매 분기마다 진행하는 정례 봉사활동 중 하나다.

참가자들은 매곡천까지 이동하면서 인도에 솟아난 잡초를 제거하고 버려진 쓰레기들을 수거하며 환경을 정화했다.

‘깨끗한 자연환경, 청정도시 북구’ 등의 문구가 기재된 어깨띠를 두르고 환경정화가두 캠페인도 함께 펼쳤다.

임채오 의장은 “거리 곳곳에 솟아난 잡초를 제거하면서 보람을 느꼈다”면서 “앞으로도 구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0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모금 동참

울산북구의회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2020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모금운동에 동참했다.

북구의회 임채오 의장과 의원들은 12월 8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김철 회장과 임영옥 사무처장 등 울산적십자사 관계자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북구 지구협의회 김옥조 회장이 참가한 가운데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원을 전달했다.

임채오 의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적십자 관계자와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변 이웃을 위한 나눔의 온기가 식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십자회비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적십자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이다.

지난 60여년간 재난으로 고통 받는 이재민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모금을 지속하고 있으며, 북구의회에서도 매년 모금 활동에 동참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 발 의 자 : 정외경 의원 외7
- 의 결 일 : 제190회 임시회(2020. 9. 1.)
- 결의요지 :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촉구 결의안

결의안(건의안)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촉구 결의안

■ 제안이유

- 가. 오늘날 기후 위기, 환경오염 등 인류 공동의 문제로 인해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양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학교교육은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여전히 20세기 교육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음.
- 나. 이에 울산교육청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미래 인재 양성기관인 ‘울산미래교육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구의회는 이를 강력히 지지함.
- 다. 북구의회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울산미래교육관 설립을 승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울산미래교육관이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미래역량 강화의 터전이 되기를 희망함.

■ 주 문

우리 북구의회는 이번 9월에 있을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울산미래교육관 설립이 반드시 승인되기를 절실히 희망한다.

우리는 기후 위기,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 인류 공동의 문제로 인해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담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학교교육은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여전히 20세기 교육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앞으로 닥칠 4차 산업 등 사회·환경·경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빈곤 종식,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등 17개 가치를 담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는 교육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요청하였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480억원을 투자하여 북구 (구) 강동초 부지에 지속가능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미래 인재 양성 기관인 ‘울산미래교육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미래교육관은 학교에서 교육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회·경제·환경 관련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 공동체 의식, 민주시민의식 등을 함양하고,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을 함양하고자 기획되었다.

우리 울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비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창의체험시설이 턱 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울산 북구는 도시개발에 따른 신흥주거지역으로 급성장하면서, 학교신설 등 교육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인프라 구축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교육청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울산미래교육관은 향후 울산과 북구를 대표하는 교육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이며, 부족한 북구 지역의 교육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22만 북구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미래사회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선도할 ‘울산미래교육관’ 설립을 승인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미래교육관’ 설립이 학생창의체험시설 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미래역량을 기를 수 있는 터전이 되기를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울산미래교육관’ 북구 설립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 발 의 자 : 이주언 의원 외7
- 의 결 일 : 제190회 임시회(2020. 9. 1.)
- 결의요지 : 동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복구 건립 촉구 결의안

결의안(건의안)

동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복구 건립 촉구 결의안

■ 제안이유

- 가. 우리 북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경제, 산업, 환경, 인구 등 많은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등 핵심 산업에서 배제되어 지역 내 균형발전이 저해된 부분이 많은 실정임.
- 나.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가 계획 중인 동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은 많은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 조속히 대비해야할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북구에 우선 건립 검토되어야 함.
- 다. 북구의회는 지역 내 균형 발전 및 입지 환경을 고려하여 북구에 동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을 건립할 것을 촉구하여 이를 위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나설 것을 결의함.

■ 주 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의 동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이 울산 북구에 건립되기를 22만 북구 주민과 함께 간절히 희망한다.

우리 북구는 1997. 7. 15. 울산의 광역시 승격과 더불어 신설되어 5개 구·군 가운데 가장 늦게 출범하였지만, 지금까지 경제, 산업, 환경, 인구 등 많은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도 큰 성장과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특히, 북구 출범 당시 10만 4천명이던 인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제 22만을 자랑하며 북구를 울산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각시키고 도시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울산 북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의 커다란 성장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국립산업기술박물관과 국립산재모병원 건립 등 핵심 사업에서 배제되어 지역 내 균형발전이 저해

된 부분도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발전의 불균형 해소 및 산업수도에 특화된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고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2018년부터 '숙련기술장려 5개년 계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계획 중인 동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건립은 우리 북구 지역에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수도권(인천)에 위치한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은 위치 상 비수도권 지역 학생과 기술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북구는 자동차 및 연관 중소기업들이 다수 위치해 있어 많은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을 조속히 대비하여 미래 자동차산업의 선두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동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은 숙련기술인 선정과 활동지원 등 산업현장 맞춤형 숙련기술전수와 기능경기사업을 통해 동남권 기술인재 양성의 요람이자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22만 북구 주민의 뜻을 모아 동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복구 건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고용노동부와 울산광역시는 지역 내 균형발전 및 접근성 강화 등 입지 환경을 고려하여 북구에 동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을 건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는 산업 맞춤형 고급 기술인재 양성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북구의회는 동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건립 유치를 위해 정부관련 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 발 의 자 : 이진복 의원 외7
- 의 결 일 : 제191회 임시회(2020. 10. 16.)
- 결의요지 : 도심융합특구 울산복구 유치 촉구 결의안

결의안(건의안)

도심융합특구 울산복구 유치 촉구 결의안

■ 제안이유

- 가. 지방 광역시 도심에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도심 융합특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창평동 일원과 시례 · 상안동 일원을 후보지로 유치 신청을 하였음.
- 나. 복구의회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우리 지역이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22만 구민 및 복구청과 함께 울산복구 지역에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촉구함.
- 다. 이번 특구 지정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완전히 배제하고 반드시 균형 발전을 전제로 현명하고 냉철하게 이루어져야 함.

■ 주 문

정부가 지방 광역시 도심에 산업 · 주거 · 문화 등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울산도 대상지에 포함되었다.

정부가 지역 특색에 맞게 산업, 주거, 문화사업을 융합해서 공간을 정비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 등 통합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지역 경쟁력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 복구도 창평동과 시례 · 상안동 일원 2곳을 후보지로 결정해 유치 신청을 했다. 복구의 후보지는 송정택지 개발지구, 호계매곡지구 등 대규모 신도시와 인접하여 주거 · 상업기반이 갖춰진 지역이다. 특히, 강동관광단지 등 해안관광단지 조성 공사 추진 중이어서 여가 · 문화 등 생활 여건 또한 매우 우수하다. 교통의 편리성 부분도 산업로, 오토밸리로와 동해남부선, 울산공항이 소재하고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며, 울산외곽순환도로와 트램 개통,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 등 사통팔달의 요충지로서 교통의 편리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우리 복구의 후보지는 이처럼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도심융합특구를 유치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이 사업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기 때문이다.

우리 복구는 그동안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고, 교통도 불편하고, 인구 역시 적다는 등의 이유로 지역 내 균형 발전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

복구는 도심융합특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으로 울산이 환동해권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발전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북부권에서 도심지 기능을 할 전략적 거점으로 도심융합특구가 복구에 유치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번 특구 지정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완전히 배제하고 반드시 균형 발전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울산의 균형 잡힌 발전은 복구는 물론이요 울산을 환동해권 중심도시로 성장시키는 주춧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도심융합특구 선정위원회 및 울산시에서는 큰 틀에서, 앞을 내다보고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는 현명하고 냉철한 시선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역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복구의회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우리 지역이 지역 내 타 구 · 군과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번 특구 지정 수순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광역시 출범과 함께 탄생한 신생도시로 그동안 개발이 더뎠던 우리 지역이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22만 구민 및 복구청과 함께 이번 특구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울산을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 성장시키는 주춧돌이 될 울산복구 지역에 대한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염원한다.

하나, 주변 시설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고, 초광역권인 환동해권 전략 거점 지역이 될 울산 복구에 유치를 촉구한다.

하나, 큰 틀에서 앞을 내다보고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는 현명하고 냉철한 잣대로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역이 선택되어야 한다.



- 발 의 자 : 이주언 의원 외7
- 의 결 일 : 제192회 제2차 정례회(2020. 12. 2.)
- 결의요지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지지 및 신속 개정 촉구 결의안

결의안(건의안)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지지 및 신속 개정 촉구 결의안

▣ 제안이유

가. 현행 지방세법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에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서,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훈련·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함.

▣ 주 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국회에서 신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22만 북구 주민과 함께 촉구한다.

지난 1월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지만,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울주군·기장군·울진군·영광군·경주시)

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 소재지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당수가 거리상으로는 원전과 더 인접해 있어 방사능 재난 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심각한 위험지역이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원전 반경 30km이하의 모든 지역은 사실상 소재지와 다를 바 없는 위험지역에 속한다.

하지만 원전 지원금의 근거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법’이나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소재지 인근 지역의 경우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훈련·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구를 포함한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 당해왔으며, 2014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원전 관련 의무는 증가된 반면, 관련 예산지원의 근거인 발전소주변지원법 등은 개정되지 않아 인력 부족 등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확대하고, 늘어난 재원을 기반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연구소 인근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원전 안전과 관련한 보상을 받게 되어 해당 지역의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구를 포함한 울산은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울산 울주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관련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원전 인

근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국회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가결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



- 발 의 자 : 임채오 의원 외7
- 의 결 일 : 제192회 제2차 정례회(2020. 12. 21.)
- 결의요지 :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

결의안(건의안)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

▣ 제안이유

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지구 환경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폭설, 폭염 등으로 생활환경이 갈수록 황폐화되고 있음.

나.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여 현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선언하고, 기후문제를 해결하여 미래세대에 지속 가능한 삶, 더 나은 생활환경을 물려주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함.

▣ 주 문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지구 환경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폭설, 폭염 등으로 생활환경이 갈수록 황폐화되고 있다. 알프스 빙하의 92%가 기후 변화로 인해 금세기 말까지 유실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또한, 사계절 24절기가 뚜렷해, 예측이 가능했던 한반도 기후가 이제는 제대로 예측하기 어렵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이 되면 올해 여름보

다 400배 많은 비가 오고, 인천공항이 물에 잠길 정도로 한반도 5%가 물에 잠기고 332만 명의 수해 이재민이 생길 거라고 경고했다. 즉 우리나라도 기후 대재앙의 ‘티핑 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울산 북구 또한 예외는 아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장마기간이 올 해 54일이라는 역대 최장 장마가 찾아왔고 호우는 국지성·계절성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데다 3등급 이상의 강한 태풍이 잇따라 강타해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여 현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선언하고, 기후문제를 해결하여 미래세대에 지속 가능한 삶, 더 나은 생활환경을 물려주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북구의회는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재난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을 통해 탄소 중립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

하나, 북구의회는 파리협정 5주년을 맞아 열린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 촉구한 ‘기후 비상상태’ 선포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지지한다.

하나, 북구의회는 지난 6월 선포한 ‘기초지방정부 기후

위기 비상선언'에 따라 북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린뉴딜 추진 및 탄소배출 제로 실현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을 촉구한다.

하나, 북구의회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및 선진사례를 통합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북구의 실행기구와 제도적 근

거 마련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에 노력한다.

하나, 북구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이 전 지구적 과제임을 인지하고, 범국민적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한다.



- 발언의원 : 임수필 의원
- 발언일시 : 제190회 임시회(2020. 9. 1.)
- 발언요지 : 행동하는 “기후위기 비상선언”과 절박한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5분 자유발언

행동하는 “기후위기 비상선언”과 절박한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채오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2만 주민의 구정을 살피시는 이동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임수필의원입니다.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들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동참하는 가운데 울산 북구의회도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동참하여 북구로 하여금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루속히 이행하라는 촉구 결의안을 동료의원들과 함께 성사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결의안에 함께하지 동참하지 못함으로써 북구의회가 [기후위기 비상선언 이행 촉구 결의안]은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결의안 제안에 반대해서인지, 진보당원이 제안이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와 관련하여 심기가 불편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겸허한 마음과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생태계는 현존하고 있는 세대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앞선 인류 조상들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주었듯이 우리도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지구의 생

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북극권의 고온현상과 각국의 폭염으로 인한 대형 산불은 미세먼지와 영구동토층에 저장된 재앙급 탄소 방출 같은 유독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시켰습니다. 기후변화로 해수온도가 상승하고 해양은 산성화되고 태풍의 위력과 강수량은 증가되어 홍수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후 평가보고서2020]에 따르면 1912년부터 2017년까지 한반도 평균 지표온도는 1.8도 상승했고 1880년부터 2012년까지 전 지구 평균 온도가 0.85도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 최근 한반도는 전 지구적 온난화 현상에 비해 2배 이상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 저감 노력 없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경우 2028년, 길게 잡아도 2030년까지 1.5℃이상 오르지 못하게 약속된 탄소예산은 모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기후 변화로 지구 온도 상승이 돌이킬 수 없는 한계점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5일 우리나라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며 정부와 국회에 ‘2050년 탄소순배출제로’ 선언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연간 약 7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

하는 세계 배출량 7위, 누적 배출량(1751년~2018년) 17위의 기후변화 책임의 당사국으로서 지금부터라도 파리협정의 약속과 2018년 한국에서 진행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특별보고서상의 권고에 따라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실천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울산 북구 기초지방정부의 기후위기 선언을 지지하며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심각한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함께하며 다음과 같이 북구에 주문을 합니다.

1. 북구와 북구의 모든 직원은 지구 생태계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인정하고, 아울러 북구는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북구는 1.5℃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행을 위해 탄소 배출제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조직, 예산, 조례를 마련해야 합니다.
3. 북구는 기후위기를 함께 극복할 북구청, 주민, 기업, 시민단체들에 대한 홍보 및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4. 북구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종 개발정책과 에너지, 폐기물 정책 등을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 에너지 효율화와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다음은 코로나 재난시기의 울산 북구의 재정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차 추경 본회의에서 자체적으로도 급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행사성 예산은 줄여 코로나 19 장기화를 대비해서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주민 분들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 재난 대비 재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2차 긴급 재난지원금’입니다.

다가올 2차 재난시기를 맞아 재난지원금으로 주민들의 힘든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2차 추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행사성 예산과 과별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삭감된 예산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써야 하는 것이지 다른 신규사업이나 기존 사업비의 증액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픈 사업이야 많겠지만 한 걸음 쉬어가며 절박한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줄 방안을 찾아봅시다.

고용보험에도 들지 못하고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수많은 영세중소사업자,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일용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등 전체 일하는 사람들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이들의 삶은 누가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지방정부에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온전한 삶을 챙겨주지는 못하지만 분명하게 위안과 힘은 될 것입니다.

좀 더 주민들 곁에서 공감하고 함께 삽시다.



- 발언의원 : 임수필 의원
- 발언일시 : 제190회 임시회(2020. 9. 15.)
- 발언요지 : 코로나19 위기 극복 재난예산 마련해야 한다.

5분 자유발언

코로나19 위기 극복 재난예산 마련해야 한다.

사랑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임수필 의원입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 위기로 힘든 시기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의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중앙정부도 힘든 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코로나 극복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당연히 울산시와 북구도 코로나 극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2회 추경예산을 보고 또 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 편성은 아니었습니다.

주민을 위하지 않는 예산이야 없겠지만 시기적으로는 적절치 않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 예산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아 아쉽습니다. 우리는 적은 예산이지만 아끼고 아껴서 재난극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많은 주민들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난으로 휴업을 하거나 휴직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어진 고용유지지원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14개 특수고용직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지만 새롭게 가입해서 혜택을 보려면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하고, 그것조차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북구라는 지역에 함께 살면서 참여의 기회도, 수혜의 기회도 없이 그동안 묵묵히 경제활동에만 전념했던 중소영세상인과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챙겨봐야 합니다.

어느 기관보다 북구청은 재난으로 인해 빈곤의 위기에 빠져버린 주민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도움과 위안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료 의원님과 북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경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쓰지 못한 예산은 최소한 중소상인, 취약계층, 주민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써야 합니다.

애초에 주민들에게 가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이후 사각지대 없는 사회 안 전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재난지원금 확보가 시급하며 소득 중심의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가 실시되더라도 임의가입자들의 가입을 늘리기 위해서 울산시와 각 구·군이 보조금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벌써 많은 지자체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보내온 글을 소개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져 직장이 불안정하고 한번 실직하면 다시 일터로 돌아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상가나 학원 종사자들의 경우

소득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소득이 더 줄어들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기혼가장들의 일자리가 불안정하여 여성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서 보지만, 정보도 부족하고 기껏 찾은 부업은 일한 시간에 비해 보수가 턱없이 적습니다.

구청에서 모집하는 희망일자리는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대부분 아는 사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고 홍보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구청에서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으려면 진짜 가난한지를 증명해야 하고 집, 물려받은 땅, 차량 등이 있으면 당장 소득이 없어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가면 먹거리를 비치한 나눔냉장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은 후원도 많이 없고 예산도 부족하여 물량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나눔냉장고를 이용할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양심껏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눔냉장고 이용자는 마치 아주 빈곤한 티를 뚝뚝 내고 가야만 지원해준다는 생각은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각종 예산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투자되었으면 합니다.]



- 발언의원 : 이주언 의원
- 발언일시 : 제192회 제2차 정례회(2020. 11. 20.)
- 발언요지 : 3도심 균형 발전과 송정역 역세권 개발을 준비하자.

5분 자유발언

3도심 균형 발전과 송정역 역세권 개발을 준비하자.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지역구 의원 이주언입니다.

코로나19로 연일 애쓰시는 이동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의료진분들과 함께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북구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2021년 10월이면 서울 청량리에서 부산역까지 운행되는 중앙선 고속철도가 준공됩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되고 집중되는 현상은 당연한 일입니다. 인구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울산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 북구는 그 어느 지역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울산에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 시대에 대단위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급속하게 도심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는 도심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북구의 발전을 저해하고 생활권을 가로막는 창평동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가칭)송정역 역세권을 3도심으로 성장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는 울산공항이 생긴 이래 현재까지 고도제한에 걸려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으며 남북으로 긴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중심시가지 형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울산의 변방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제는 신도시로의 도약과 함께 새로운 성장 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22만 북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특히, 외곽순환고속도로, 트램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확충되고는 있지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수는 여전히 타 구·군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편이어서 늘어나는 인구수에 맞춘 다양한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우리 북구는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속속 차오르는 물을 담을만한 크고 튼튼한 항아리가 될 수 있는 뛰어난 도시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밑 빠진 독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결국 울산의 장기적 도시 확장과 지속 성장,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중심지인 1도심을 토대로 서부권 2도심, 북

부권 3도심을 양대 성장 축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래야 우리 북구가 변방에서 울산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칭)송정역 개통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지난주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공사 현장을 전격 방문해 주셨습니다. 일정에도 없는 부분인지라 고맙고도 감사한 일입니다.

2021년 연말 준공 예정인 (가칭)송정역에 광역 전철을 개통시키기 위한 이상헌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성과입니다.

총리님께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사람을 살게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사람부터 살고 난 뒤에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니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입니다. 다행히 역사를 확장할 수 있다고 하니 이제는 주차장 및 진입로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송정역 노선연장은 단순한 철도 노선 연장을 넘어 앞으로 전개될 울산과 부산, 경주를 잇는 동해남부권의 교통 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광역전철이 아니더라도 부산 부전에서 청량리, 동대구, 삼척(영덕)에서 오는 신형 열차들이 (가칭)송정역에 정차를 합니다. 여기에 (가칭)송정역의 입지가 송정박상진 호수공원과 근접해 있어서 주말이면 많은 트래킹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부산 일광역의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주말에 수천 명씩 쏟아질 관광객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 져야 하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북구청에서는 3도심 균형발전과 송정역 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해 국토부와 울산광역시 등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북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힘든 시련들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 발언의원 : 이진복 의원
- 발언일시 : 제192회 제2차 정례회(2020. 11. 20.)
- 발언요지 :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5분 자유발언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진복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과 봉사활동에 헌신하시는 사회단체장과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 북구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노력과 북구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아직은 안정적인 국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그 자체 못지않게 더 무서운 것이 경제적 피해 확산입니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북구 경제가 코로나 19로 인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광업 등 모든 자영업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우리 북구에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모든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에는 역부족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마이너스 수입 상태로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조달할 길이 없어 갈수록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폐업의 급박한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북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와 피해 점포 지원 등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피해상황별 맞춤형 긴급지원'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 금지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중이용시설업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달 임대료 지원'이나 '인건비 일부 지원', '전기료, 상수도 요금 등의 공공금 지원' 등 피해상황별 차등지원과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에 대해 관련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 75조의 2'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실질적인 '지원혜택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북구 소상공인 사업체는 9,488개소, 종사자 19,330명(통계청 2017년 기준)에 달합니다.

그러나 지원혜택을 받은 업체는 9월 말 기준으로 경영안정자금지원 258개 업체, 코로나19 피해 점포 지원 709개소, 경영컨설팅 지원 14개 업체 등 총사업체의 약 10%만 혜택을 받았을 뿐, 나머지 90%의 소상공인들은 제대로 된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경영악화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진 많은 소상공인들은 지원 신청조차 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에 대해 휴업 일수와 매출 감소 여부를 감안하여 지원제외 대상까지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구분하여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악화로 휴·폐업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광역시, 그리고 여러 기관의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가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지 않는 것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적극 참여하며 감내한 특별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화 정책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우리 북구 경제의 재도약을 준비하고 실행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런 특별한 위기를 슬기롭게 잘 이겨낸다면 평온한 일상의 행복을 다시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힘이 하나로 모여 잘 극복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의원 : 이진복 의원
- 발언일시 : 제192회 제2차 정례회(2020. 12. 15.)
- 발언요지 :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5분 자유발언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진복 의원입니다.

2018년 7월 출범한 제7대 북구의회는 이제 중반을 넘어서 올해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정책을 보면 열심히 일했던 부분, 잘하고 있는 점들도 분명 있지만 어떤 사업들은 그 집행 결과를 봤을 때 질책을 면할 수 없고, 더러는 오해의 소지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혹여 행정사무감사 중 과오에 대한 의회의 지적이 조금 불편하였더라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 수의계약에 대한 사항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2018년부터 올해 2020년까지 3년간 우리 북구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18년 총 1,622건에 163억 3천8백여만 원 중, 관내기업 계약현황은 469건에 44억 5천6백여만 원으로 건수 대비 29%, 금액 대비 27%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1,624건에 155억 8천1백여만 원 중, 관내기업 계약현황은 445건에 30억 6천5백여만원으로 건수대비 27%, 금액대비 19%였으며, 올해 2020년도 9월까지 총 886건에 114억 7천6백여만 원 중, 관내기업 계약현황은 335건에 24억 3천1백여만 원으로 건수대비 38%, 금액대비 22%에 불과 합니다.

이중 특히 용역사업의 경우는 2018년에 관내기업 계약 비율이 금액대비 10%, 2019년은 18%, 2020년은 15%로 너무나 미흡합니다.

용역사업의 경우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관련 법령에서도 지역업체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세금인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지역 자본의 외부유출이 우려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각종 물품 구매의 경우, 지난 3년간 수의계약 지역 업체 수가 건수와 금액대비 평균 24%로 대부분 타 지역업체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역 물품 구매가 활성화되어야 지역업체의 도산과 인 구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가 발주하는 수의계약 건에 한해서라도 관내 업체와 계약하여 관내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건설산업 분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의계약 관련 법은 실적이 전무한 지역업체를 육성하여 지역 건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의 현실은 당초 취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타 지자체들은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기업에 대한 보호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사 관급자재의 경우 지역기업의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설계 ·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대형공사가 타 지역 업체에 낙찰될 경우 하도급 수주회사는 지역 업체에 우선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2천만 원 미만 공사·용역·물품계약 체결 시 지역 내에서 생산 · 판매하는 업체에게 견적 제출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업체의 범위를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뿐만 아니라 대표자 역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 정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 업체가 활성화되어 다 같이 잘 사는 우리 북구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개입찰에서 낙찰 받은 업체가 우리 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물품을 우선 사용하며 건설기계 및 노동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권장 정책을 제안합니다.

둘째, 북구가 시행하거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과 단체의 수의계약은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하는 '지역업체 우선 계약제'를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반기별로 각 부서에서의 계약 체결 현황을 공개하고 계약 시 업체별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등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지역 업체와 계약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 업체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청취와 지역제품 구매 활성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계약 제도 개선 문제는 북구주민의 의견을 담은 시대적인 요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공정한 사회문화 조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정부의 변화를 북구 주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과 함께 몸도 마음도 춥습니다. 북구주민을 위한 따뜻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발언의원 : 이정민 의원
- 발언일시 : 제192회 제2차 정례회(2020. 12. 21.)
- 발언요지 : 포스트 코로나시대 저출산 · 고령화 대책 찾아야

5분 자유발언

포스트 코로나시대 저출산 · 고령화 대책 찾아야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과 임채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정민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절과 친지의 결혼식은 물론, 심지어 가족 구성원의 생일날까지도 만남이 조심스럽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언제까지 이런 시대를 살아야 하는지 걱정과 두려움에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주변에서도 고통을 호소하며 일상을 되찾고 싶어 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과거에 그러했듯이 이 난관을 헤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전진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감히 역사의 변곡점이라 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어쩌면 이 질병보다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문제,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19에 밀려 예전 같이 많이 접할 수는 없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침투하기 전부터 큰 걱정거리였으며, 현재도, 미래에도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196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산아제한 정책과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면서 출산율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평균 출생아 숫자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1965년 5.63명에서 2010년 1.15명으로 급격히 낮아져 초저출산 시대에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울산 역시 상황이 심각합니다.

올해 2월 발표된 울산광역시의 ‘울산 인구증가 대책 2020년 시행계획’에 의하면 울산은 2002년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후 2010년 1.36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이 올해 2분기에는 0.97명으로 1명 이하로 추락하였습니다.

분기별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출산율 감소는 인구 감소로 이어지며,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납세자 규모 감소 등 결국 국력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울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15년 8.5%에서 올해는 12%, 2023년에는 15%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 후 2028년에는 20.9%까지 확대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보다 출산율이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고령화는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현재도 뉴스에서 노인들의 외로운 삶과 고독사 소식을 심심찮게 보게 되는데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하니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령사회가 되면 은퇴한 노년층이 젊은 층이 낸 세금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사회보장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는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간과할 수 없는 큰 숙제는 가정과 국가, 크게는 인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저출산·고령화와 젊은 층의 유출 등으로 수십 년 내에 소멸 위기에 놓일 지방자치단체가 적지 않다는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빈약한 나라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인적자원 덕분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난,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원인 인적자원의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 가능한 정책을 마련할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더 늦으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호계동대중앙로
포켓주차장 준공
(20.07.02)



바르게살기운동
환경정화활동 동참
(20.07.07)

민주평통 북구협의회와
간담회(20.07.20)





농소2동 민원실
증축·갤러리 준공식
(20.07.22)

사서도우미 양성과정
수료식 격려
(20.07.23)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북구지회
발대(20.07.23)

통정회 강동해변
환경정화활동 격려
(20.07.28)



1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20.09.01)

이화정 도시재생뉴딜대학
개강식(20.09.21)





감성갱도2020 개관식
(20.09.24)

반려동물문화센터개관식
(20.09.24)



효문동 주민자치위원
위촉 및 발대
(20.10.13)

(가칭)송정역
건설 현장 방문
(20.10.16)



강동동 주민자치위원
위촉 및 발대
(20.10.16)

북구노인회관
건설 현장 방문
(20.10.16)





양정 다함께 프리마켓 참가
(20.10.23)

매곡천 친수환경조성 &
경관개선사업 준공
(20.10.26)



햇살작은도서관 재개관식
(20.10.28)

쇠부리소리
정기공연 격려
(20.10.31)



북구자활센터 이전 개관
(20.11.03)

바르게살기운동
식목행사 동참
(20.11.10)





북부경찰서 개소식 참가
(20.11.10)

농소2동
자율방범대 발대식
(20.11.14)



그린뉴딜Life
도시농업 한마당
(20.11.21)

이진복 운영위원장
지방의정봉사상
(20.12.21)



북구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20.12.21)

코로나19 PCR 검사
지원 회견
(20.12.23)



| 북구의회 실시간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 |



○ 서비스 개요

-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모든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PC,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의회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
- 주민들에게 북구의회 의사 진행과정을 생방송 및 녹화 영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

○ 서비스 내용

- 북구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전 일정 생방송
- 북구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전 일정 녹화영상 영구 제공

○ 접속경로

북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kgu.ulsan.kr>) → 인터넷방송 메뉴 클릭 → 메인화면 ON-AIR 메뉴 클릭 → 해당일자 본회의의 목록 클릭 → 영상화면 내 재생버튼 누르고 시청

※ 짝 찬 화면 시청 방법

- PC : 영상화면 하단의 전체화면 마크 클릭
- 모바일 : 스마트폰 가로로 회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 민원상담 안내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과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구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하여 주민의 각종 민원사항을 접수받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 수 09:00 ~ 18:00(토, 공휴일 제외)
방 법 민원인과 해당 지역구 의원과의 직접 상담 또는 현장방문
내 용 각종 민원 불편, 애로사항 상담 및 처리, 각종 여론 수렴
 ※ 의원 부재 시에는 의회사무과(5층)에서 접수
 전화 : 241-8973 팩스 : 241-8979

효문·양정·염포동	농소2·농소3동	비례대표	농소1·강동·송정동	농소1·강동·송정동	농소2·농소3동	농소2·농소3동	효문·양정·염포동
의 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원
임 채 오	이 정 민	이 진 복	이 주 언	정 치 락	정 외 경	임 수 필	백 현 조
의장실 : 241-8900 010-4844-5405	부의장실 : 241-8910 010-3123-3387	사무실 : 241-8920 010-4228-8986	사무실 : 241-8990 010-9173-4432	사무실 : 241-8960 010-3863-8980	사무실 : 241-8950 010-6625-7725	사무실 : 241-8930 010-6227-0049	사무실 : 241-8940 010-3801-836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전 화 052) 241-8971~8975
F A X 052) 241-8979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홈페이지 council.bukgu.ulsan.kr

의회방청 및 견학안내



북구의회의 주인은 주민 여러분입니다!

북구의회는 주민 여러분께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의회 방청을 희망하시는 주민께서는 간단히 의회사무과에 신청하시면

회의 진행과정을 생생하게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방청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의회사무과(☎241-8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새 시대를 여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전 화 052) 241-8971~8975

F A X 052) 241-8979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홈페이지 council.bukgu.ulsan.kr